

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3. 12. 1.(금) 21:20

한국, 국제해사기구(IMO) 최상위 A그룹 이사국에 12회 연속 선출

- 12. 1. 국제해사기구 제33차 총회에서 재선출, 해상분야 핵심현안 주도 기대

정부(외교부 및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12월 1일(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에서 A그룹(주요 해운국) 이사국에 12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해상안전, 해양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국제 규범 제·개정 및 이행을 촉진하는 UN산하 전문기구(정회원: 175개국, 준회원: 3개국)

국제해사기구(IMO) 이사회는 기구의 예산, 국제협약 제·개정 심의 등 기구의 전반적인 운영을 주도하는 내부기구이며, 주요 해운국인 A그룹(10개국), 주요 화주국인 B그룹(10개국), 지역 대표국인 C그룹(20개국)으로 구성되어 2년마다 전체 회원국의 투표에 따라 선출된다.

그 중에서도, 이사회 내에서 논의를 주도하는 A그룹 이사국은 해운분야에 기여도가 높은 국가 중 10개국이 선출되며, 이사국 선거에 참여한 회원국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62년 국제해사기구(IMO)에 가입한 후 1991년 처음으로 C그룹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5회 연임한 바 있으며, 2001년부터 11회 연속 A그룹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32년간(1991년~2023년) 이사국 지위를 유지해 왔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2021년 7월 영국 런던에 설치된 국제해사기구(IMO) 대표부와 회원국 내의 우리 대사관을 통해 지난 수개월간 적극적인 지지교섭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이사국 선거 직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영국을 방문하여 각국 대표단과 만나 양자회담을 갖는 등 활발한 지지교섭 활동을 펼친 끝에 A그룹 이사국 12회 연속 선출의 성과를 거두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A그룹 이사국으로서 자율 운항선박, 디지털, 탈탄소 등 국제해사기구(IMO) 내 주요 현안 논의를 적극 주도 하며 국제해사기구(IMO)의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라며, “아울러, 현안 관련 국제기준 제·개정 과정에도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해운·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성용 (044-200-5810)
		담당자	사무관	김희곤 (044-200-5825)
	외교부 국제기구국 유엔과	책임자	국제기구협력관	이 철 (02-2100-7224)
		담당자	사무관	서정은 (02-2100-8422)

